

# 與, 현역 하위 20% 대상자 통보 완료

### 공관위, 22명에 개별 통보...미확인 명단 재등장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의 접수...향후 취합 논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철저히 비공개 원칙으로 했지만 명단에 누가 올랐는지 당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출처불명의 명단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의원은 평소와 같이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반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린 곳은 소문을 일축하느라 애를 먹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하위 20%' 대상자 22명에게 개별 통보를 마쳤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앞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거쳐 현역의원 평가

를 마무리했다. '하위 20%'는 2개 평가 결과를 합산해 추려졌다. 이들은 오는 4·15 총선 경선에서 20%의 감산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하위 20%'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당 공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 결과 비공개를 결정하고 기밀 엄수를 당부했다. 명단이 공개·유출될 경우 대상자들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컷오프(공천 배제)가 아닌 감산을 적용하는 만큼 대상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준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의 '기밀 엄수'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날 공관위의 통보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의원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확

인 명단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다. 설 연휴 전에도 한 차례 미확인 명단으로 소동을 겪은 민주당은 앞서 "하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250조(하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미확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당 명단에 오른 의원들 중에는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도 있다"며 "실패할 수 없는 명단"이라고 말했다.

"하위 20%"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기밀이 유지되는 한 일상적으로 의정활동과 총선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 관측도 감지됐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불출마를 할 경우 하위 20% 대상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감산 범위를 감수할 수 있다면 경선에 승부를 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원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총선 준비에 몰두했다. 수

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느라 신경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울산·경남(PK) 초선 의원실 관계자 역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보를 받은 의원실만 영향이 있지 않겠나"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의 이의제기 신청 여부도 관심사다. 이들은 민주당 당규 74조 1항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공관위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 공관위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서면 접수를 한 뒤 이를 취합해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는 의원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의제기 신청을 하러 왔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관위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계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는 한 (이의제기 신청을) 납득할 만한 것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 박형준 "함께하자"...김영환·문병호 "의견반영 보고 결정"

### 총선서 여당 과반 의석 저지·문재인 정권 심판 '공감대'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영환 전 국민의당 사무총장,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과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문 전 최고위원, 김 전 사무총장, 박 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보수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박형준 위원장이 29일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영환 전 국민의당 사무총장,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문 전 최고위원, 김 전 사무총장, 박 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나 "나라의 계도가 이탈했는데 정상계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선 대원칙 아래에서 손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혁통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신당을 하면

서 범중도보수에 계신 많은 분이 하나가 되도록 저희가 새로운 가치와 정책 기준, 원칙을 정했다"며 "큰 흐름에서 차이가 없다면 이제 손 맞잡고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문 전 최고위원은 일단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관철될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여당의 폭주를 막고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고 다음 대선에서 현 정권 심판으로 재집권을 막는 것이 시대의 중요한 일"이라며 세 가지 제안을 박 위원장에게 했다.

그는 통합신당이 △보수통합을 넘어 합리적 진보와 중도 개혁세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전향적인 국민통합이 되어야 할 것 △도로 자유한국당 반대 △목표가 단순히 '반문연대'에 그치면 안됨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진한 화장은 안된다"며 "성형수술은 해야 국민이 봐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황교안 "靑 우한폐렴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 급급"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청와대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이나 고치는데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 아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이미 곳곳에서 조기 대응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 불신을 더 깊어진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 안전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입국 시 방역체계 강화, 의심 환자 관리, 대국민 실시간 정보 공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면역 취약계층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자영업·관광숙박업종에 대한 종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한국당도 대응책 마련, 입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안철수 "바른미래당 떠난다"

### 췌·安 창당 두기등 모두 탈당...신당 창당 작업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9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 창당의 두 기둥으로 불리던 안철수·유승민이 모두 바른미래당을 떠나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안철수 통합선언문을 기초로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합당해 탄생했지만,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손 대표의 당권 문제·당의 이념 정체성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당을 떠났다.

자신이 '공동 창립'했던 바른미래당을 바탕으로 정계 복귀를 계획했던 안 전 대표는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당은 지방선거 이후 내홍과 질곡 속에 갇혔고, 내부 통합도, 혁신도, 국민께 삶의 희망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며 "소속 의원 개개인의 높은 역량은 기성 정치질서에 묻혀버렸다"고 손 대표를 예뻐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손 대표에게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안을 했지만 손 대표는 전날 이를 거부했다.

안 전 대표는 "기성 정당의 틀과 기성 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실용적 중도 정당이 성공적으로 만

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한다면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제가 주어진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뛰어들고자 한다"며 "저의 길은 힘들고 외롭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진인사대천명',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과 하늘의 뜻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자리는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일사불란했다. 회견장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문을 읽었고,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다.

취재진은 안 전 대표에게 향후 신당창당 작업 계획·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문제 등을 물었지만 안 전 대표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기자회견 장소를 떠났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곧 향후 행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안 전 대표는 국회와 당사에 위치한 당직자들의 사무실에 들러 일일이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 자리에는 안 전 대표 외에도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소위 안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리했다.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